



발표요약본 (Presentation Summary)

A-2 세션. 진영심 KT그룹 인재개발실 실장

일하기 혁명을 맞이하는 기업의 자세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사업적 경쟁력뿐 아니라 일 방식, 일터에서 개인의 경쟁력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쥔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었고, 웹 2.0 시대 새로운 산업이 대거 등장하며 부와 권력을 재편했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손에 쥐고 잘 활용하는 기업 혹은 개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 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Session A-2. Jin Youngshim

Direct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KT Group

A company's attitude towards the work revolution

Digital technology is changing not only the business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but also that of the way people work and the individuals in the workplace. By using digital technology,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world more accurately and solve problems that were previously unsolvable. Just as in the Bronze Age and Iron Age, people with new tools led the pack, and in the Web 2.0 eras, new industries emerged in large numbers and reorganized wealth and power, now it is digital technology. Companies or individuals who acquire and utilize digital technology well before others are bound to have a competitive edge.

However, giving members new tools and enabling them to use them for their own purposes is more difficult than expected. We will look at what KT is doing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examples, and share the insights gained in the process.

※ 연사가 발표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발표요약본으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Speakers did not granted to release their presentation materials, therefore, a presentation summary will be provided.